

현장시선



고 상 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인들은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로 인한 매출부진이 더 무섭다”고 한다. 이제는 전세계적 확산으로 조업감축, 실직률 상승 등 비관적인 경제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가히 세계가 비상상황인 듯하다. 석학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달라져 산업과 생활의 패턴이 크게 변한다고 한다. 이에 우리 제주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의 안정적 발전에 대해 성찰하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산업비중(2017 지역총생산)

코로나19 이후 제주 산업생태계 개선… 중소기업 육성

은 서비스업이 70%, 농림어업이 11.2%, 건설업이 12.5%, 제조업·광업은 4.5%의 분포를 보인다. 제주의 중소기업은 4.0%대 초반으로 매우 낮다. 육지부와 떨어져 있고 주변 대도시와 멀다는 여건을 감안해도 빈약하다. 이처럼 산업구조가 편중되면 지난번 중국의 사드 관세제한이나 메르스·코로나와 같은 외생변수에 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에 제주에서 중소기업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네 가지 분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기차 등 첨단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복잡한 내연기관 구조인 기존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는 적은 수의 모듈화 된 공정이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도 가능하며 오히려 더 큰 장점들도 있다. 제주는 지난해 말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전기차 1만8000대를 보급했고, 2030년대에는 70% 전기차 전환 계획도 있다. 또 공공시설과 아파트

에 충전기 설치율도 가장 높다. 지난해 11월 규제자유지역특구 지정시 제주는 전기차 분야를 신청했는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다만, 전기차충전서비스(용역) 분야만 지정 받았는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향후 전기차 분야에서 확대가 꼭 있어야 하며 이에 전도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제주에서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6차례 개최됐고 올해도 열린다.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도로시설정보공유’와 ‘시험공간(테스팅 베드)’ 등은 세계적 기업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둘째, 기존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육성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국비를 지원한다. 전국에 23개의 ‘집적지구’와 34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제주에는 1개도 없다. 작

은 제조업체들이 몰려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 이도동 지역에는 40여개의 인쇄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셋째, 공예 분야 육성과 관광산업과의 연계이다. 제주는 예로부터 공예 전통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대량생산이 갖는 획일성, 단조로움에 지쳐 전통적 조형양식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도내공예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공예관을 설립해 공예문화육성(체험서비스·교육플랫폼)을 통해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넷째, 도내에서 발주되는 민·관수의 계약물량도 도내업체들이 육지부 업체와 경쟁하고 재하청으로 전락하고 고사하는 사례도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막연히 “제주는 제조업과는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자생·자립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설

4·3 치유해야 할 여야는 ‘네 탓’만 하니

흔히 사냥이라고 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종계 표현해서 사냥이지, 동물을 무차별 죽이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냥이 70년 전 남도의 섬에서도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사냥’이 이뤄진 겁니다. 최근 추가로 펴낸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통해 그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최근 발간한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마을별 피해실태와 집단학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촌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북촌리 주민 집단학살(299명)을 비롯 정방폭포 학살터(235명) 등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4·3 당시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된 집단학살이 도내 26곳에서 자행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기막힌 사례도 있습니다. 1949년 12월 발생한 도두리 동박꽃을 집단학살사

건입니다. 경찰이 소개된 가운데 가족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란 명목으로 노형리 주민 21명을 총살했습니다. 이들은 총살 현장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박수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실로 제주4·3의 공포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7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아픔을 치유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제주 4·3특별법 처리엔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4·15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서로 ‘네 탓’ 하기에 바쁩니다. 4·3이 오늘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야는 구차한 말보다 총선 끝난자마자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대나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거부·무단이탈 처벌 ‘예외없다’

제주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의료·방역·행정 인력의 투입에도 지역경제 심각한 위기에서부터 각급 학교 개학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휴직 등 모든 분야의 일상생활 파괴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도민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언제쯤 코로나19 사태의 종점을 맞을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또다시 연이은 입도객 확진자에도 자가격리자수 증가로 이어져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격리자의 무단 이탈 등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례들마저 나와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의 희생과 도민들의 노력을 일시에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조치된 A씨(80대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했는가 하면 앞선 29일에도 제주 7번 확진자(26·여)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B씨(47)가 무단이탈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경위조사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도는 향후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발조치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특별행정명령’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현 난국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으로 진행되게 방관선선 결코 안됩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난리통을 겪는 판국에 일정기간 격리도 참지못해 개인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예상키 힘든 더 큰 고통과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부 이탈자들에 대해 예외없는 강경조치를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열린마당

할머니가 4·3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



고 상 희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초등학교 시절 어느 제삿날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4·3때 총 맞았 죽어’, ‘집들이 다 불에 타고’, ‘연좌제로 육군사관학교에 못갔다’ 라는 친척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렸던 나는 4·3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날은 할머니에게 4·3에 대해 여쭙 봤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두린 아이는 몰라도 된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나를 단속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4·3 당시 돌아가셨다. 지금 살아 계신 작은 할아버지는 팔에 총을 맞고 죽은 척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4·3을 겪은 할머니는 4·3이 무엇이라는 나의 질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뿐 더러, 어린 손녀가 알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내 입을 막고 침묵했던 것 아닐까 싶다. 민주화 흐름속에서 4·3 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생존자와 유족들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됐고, 4·3 희생자 추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보지 못하고 50년의 침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올해도 4월은 어김없이 찾아 왔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유족과 도민들은 추모 발길을 잠시 멈춰야 할 것 같다. 올해 치러지는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코로나 19여파로 축소해 간소하게 봉행된다. 참가인원도 제한되는데 부득이 4·3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유족과 도민은 12시 이전에는 가급적 방문 자제를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강경필 후보 “테스트 하지말라”

위성곤 후보 반복질문 반박

○…2일 진행된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주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를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테스트’ 논란이 일어 눈길. 위성곤 후보가 1차산업 관련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강경필 후보는 “학생도 아니고 자꾸 테스트를 하려고 하지말라”고 반박.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OX 토론 방식에 대해 설명하던 사회자가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라고 말해 두 후보가 실소. 송은범기자

“꽃구경객 반갑지 않아요”

○…유채꽃길이 10km에 이르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에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자 가시리마을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될까 우려하며 서귀포시에 “유채꽃밭을 빨리 갈아엎어 달라”고 요청.

이는 지난달 하순 미국 유학생 모녀가 가시리 인근 표선리를 방문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에 미친 파장이 컸기 때문. 시 관계자는 “드라이브백들이 오가는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딜레마”라며 “이달 10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갈아엎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새 집행부 구성 ‘총선 뒤로’

○…민선 첫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새 집행부 구성을 오는 15일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연기. 부평곡 제주도체육회장은 2일 도체육회관 기차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활동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민선 체육시대는 정치와 별개로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선거 전 집행부 구성에 대한 부담을 시사. 김지은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여산송씨 일식(향년 79세)** 상지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3일

아들 **고창범**

고광범

머느리 김현숙

딸 **고유경**

사위 강승국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20. 03. 30.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날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0. 6. 2.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0년 04월 02일

주식회사 고르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72번길 18, 비동(서귀동) 청산인 이 동 환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 대!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최대·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옥양(향년 92세)** 상지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3일

아들 **김동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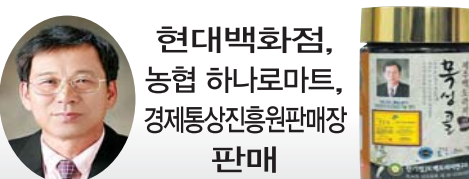
머느리 최혜경

낙경

최규영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를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